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자폐·정신지체아동 등 대상 음악치료전문인력 양성

음악치료는 예술로서의 속성인 '음악'과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는 '치료'가 복합된 것이다. 즉 음악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상태를 개선시키며 치료해가는 전문분야이다. 숙명여대는 국내 최초로 이러한 음악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음악치료대학원을 설립해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음악치료과정은 이미 50년의 역사속에 정신과, 노인, 특수교육의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숙대 음악치료대학원에서는 자폐, 정신지체, 행동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치료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음악치료는 음악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문제 행동과 상태를 개선시키며 치료해 가는 음악의 전문분야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상담을 하듯이, 음악치료에서는 수동적인 감상이나 적극적인 음악활동을 도구로 치료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직은 생소한 음악치료에 대한 최병철(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주임교수)박사의 소개다.

음악은 범인류적 언어이다. 인종과 언어와 나이의 벽을 넘어 의사소통의 매개로 작용하며, 이러한 점은 정상적인 사람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 음악은 상호 이해와 교감의 차원을 넘어, 보다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시키는 치료의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에, 음악은 쉽게 치료의 실마리를 찾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음악치료를 받는 치료 대상자가 음악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거나 특정한 음악을 좋아해야 할 필요도 없다.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전문 음악치료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개설되었다. 미국의 경우 음악치료교육과정은 이미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악치료, 전문음악 치료사,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음악치료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음악활동통해 신체·정신기능 강화

예술로서의 속성인 '음악'과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는 '치료'가 복합된 것이 음악치료이다. 음악치료는 단순한 연주자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만들어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치료사에 의해 이뤄지는 문화치료의 한 방법이다. 지난 1997년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음악치료(Music Therapy)란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와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음악의 전문분야이다'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음악치료사는 전문인이다. 현재 3년 정도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실습도 하고 인턴 과정도 밟아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단기간의 훈련을 통한 자격증의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음악치료협회에서는 음악치료사의 자



음악치료
실습장면(위)과

직장인을 위한
음악치료장면



격인증 심사기준에 대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하고, 음악심리학이나 특수아동심리학과 같은 기초 교과목과 음악치료기술, 음악치료철학, 음악과 인간행동과 같은 전공 교과목과 대학원 과정 3학기 이상의 음악치료 실습과 6백40시간 이상의 인턴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96년 한국음악치료학회로 출발하였으며, 음악치료 연구를 위한 연구정보를 수집하고 교환, 배포하는 한편 학술지 발행과 학술회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숙대 음악치료대학원은 음악치료학 석사(Master of Music Therapy)학위 과정이며, 임상음악치료와 치유음악목회 두 전공으로 나뉘어져 학기중의 실습과 4개월의 인턴 과정을 마쳐야 한다. 현재 모두 37편의 학위논문이 나왔으며, 졸업생들은 복지관이나 이동병원, 연구소 등에서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거나 각 대학교에서 음악치료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과, 노인, 특수교육의 순서로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숙대에서는 음악치료센터를 통해 자폐, 정신지체, 행동장애 아동들의 음악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음악치료대학원 부설 음악치료센터는 지난 99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대학 부설로는 국내 최초이다. 이 곳에서는 음악치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음악치료의 치료적 목적을 위한 적응기술을 포함한 많은 교육적, 치료적 목적들을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치료에서의 음악은 아동의 내면세계를 잘 구성시켜 외부 세계에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긍정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한다고 보는 철학이 전제되어 있다.

장애인 부모대상 3차례 세미나 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악치료만을 가르치는 학부 과정이 부재한 실정이며, 독립된 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원은 숙대 밖에 없다. 단 여러 대학에서 학과목으로 음악치료를 가르치고 있으며, 몇몇 대학에서는 교육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등에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학원 학업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능력 형성을 위해, 숙명여대에서는 비디오표와 임상현장자료와 실습시범 등을 통한 '음악치료학 개론' 강의와 '음악심리학 개론' 강의를 개설,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다.


“음악치료는 건강과 관련되어 21세기 문화환경에 대단히 유용한 전공입니다. 음악치료사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자리잡아 온 정신과, 특수교육, 노인영역 등의 전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대학원에서는 곧 연주불안 음악치료, 스트레스 대처 음악치료, 비행 청소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적 영역을 넘어 음악치료의 개념을 이해, 응용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게, 건강하게 이끌 수 있다. “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동질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상태와 비슷한 음악을 먼저 감상하면서 서서히 원하는 감정적 상태를 유도하는 음악으로 바꿔간다면 쉽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지요.” 그리고 ‘클래식이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병철박사는 지적한다.

조용하고 느리며 부드러운 멜로디의 배경음악이 상점에서 구매에 도움을 주고, 약간 경쾌한 음악이 뷔페는 식당에서 소화를 돕고 빨리 자리를 비우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수술환자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주는 것도 치유적 음악활동의 일종이다.

최병철박사는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공인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남일리노이대학에서 음악학사와 석사,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하고, 지난 1996년 캔사스대학에서 음악치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인이 중심이 된 음악치료에서 세계적인 교수들을 참여시켜 세계인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강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처음에 특수음악교육을 하려다가 우연히 음악치료란 분야에 대해 알게 된 후, 음악치료에 빠져들어 ‘태어나 정말 처음으로 하고 싶은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때를 회상하는 최병철박사에게서 변함없이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음악치료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음악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장미라 < 본지 객원기자 >